

## 05

제82차 국제대담회  
연차회의의 참관기(주)대우건설 팀장  
채 석 준

제82차 국제대담회 연차회의는 2014년 6월 2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다. 72개국 약 1,5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대표단은 17개기관에서 32명이 참가하였다.

발리로 출발하기 전까지 등록, 전시 등 준비 과정과 시스템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힘들었다. 성격 급한 한국사람인 탓일까, 바로 오지 않는 답변과 너무 느린 정보 전달 등 모든 것에 있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다. 공항에 도착해 첫발을 내딛는 순간, 두 뺨으로 날씨는 느끼는 그 순간 왜 이곳의 스텝들이 우리보다 조금은 여유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랬다. 너무 덥고 무엇보다 습했다. 도저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엔 무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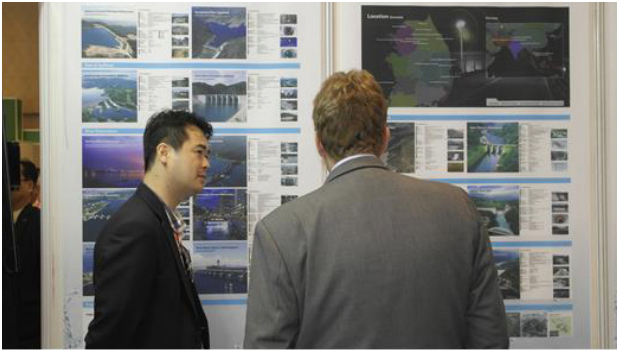
그런데, 착해도 너무 착했다. 눈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인들 너무 착하고 순수했다. 행사장에 도착해 전시회장을 세팅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일때에도 현장 스텝들은 다소 느렸지만 친절했고 착했다.

첫날, YEF 회의가 열렸다. 국가별 활동 보고, 신임 이사 선출, YEF 신설 국가위원회 소개, YEF TOR 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반가운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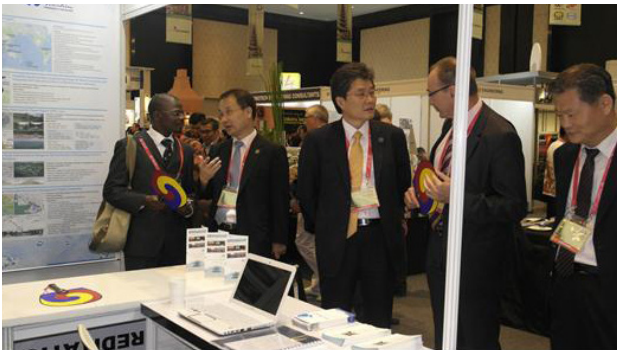


YEF 회의모습

86개 업체가 참가한 기술전시회장에는 한국대담회 부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아이디어로 무장한 전시장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각국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모으러 다니는 유머러스한 어르신들도 몇몇 계셨고 누가봐도 스마트해 보이는 기술자들도 여럿 한국대담회 부스를 방문했다.



국내 주요 댐 사업 홍보



염경택 단장 선거 유세

6월 3일 기술분과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 주제별 국내 현황을 소개하고 주제토론을 이어갔다. 특별히 댐환경 관리에 김계현 부회장이 참석하여 각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위원회 발전 방향을 토의했다.

댐 안전분과에는 신동훈 위원이 참석, 현행 댐 안전 법률 및 규정관련 계획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전경수 위원이 참여한 홍수평가와 댐안전 분과에는 Bulletin "Flood Evaluation for Dam Safety" Chapter별 작성 내용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졌고 기후변화와 댐 및 수자원 분과에는

염경택 위원이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저수지 퇴사 분과에는 정관수 부회장이 참석했다.

문화행사, 그날이 가장 가까이에서 발리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꼈던 날이었다. 형식도 꾸밈도 없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여 즐겁게 춤추고 느끼며 서로를 알아갔다. 음식도 나쁘지 않았고 가까이에서 느꼈던 바다도 분위기에 한몫을 했다.

6월 5일 연차회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제심포지엄이 Dams in Global Environmental Challenges 주제로 시작되자 각 심포지엄장에 활기가 더해졌다. 한국측은 구두발표 5인, 포스터발표 3인이 참여했다.



국제심포지엄 전경

기술시찰이 있던날은 한국측 뿐만아니라 많은 참석자들이 덥고 습한 날씨에 힘들어 하는 듯 보였다. 거기다 뜻하지 않은 교통체증으로 생각보다 늦어진 스케줄에 돌아오는 버스안에서는 모두 지쳐있었다. Telaga Tunjung Dam 전경 사진이다.



### 이번 연차회의의 하이라이트! 승리의 만세를 부르다!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되고 한국인이 그렇게 반가운 이유! 한국대표단, 우리 모두 하나였다.

염경택 단장이 중국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Asia-Australasia Zone 부총재로 선출되었다. 너무나 떨리고 긴장된 순간이었다. 1인의 승리와 기쁨이 아닌 우리 모두의 승리이자 기쁨이었다. 그밖에 Mr. M. de Vivo가 사무총장으로 재 임명되었고 2017년 연차회의 개최지가 체코, 2018년 연차회의 및 26차 총회 개최지가 오스트리아로 각각 선정되었다.



연차회의 참석 한국대표단



부총재 당선 감사 인사

작년에도 올해도 연차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때면 늘 아쉬웠다. 처음엔 낯설던 타국사람들도 덥고 습하던 발리도 그리고 무엇보다 정든 한국대표단과의 헤어짐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가 뛰었기때문일 것이다. 연차회의 참석 준비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정성을 다 해준 한국대대회 사무국 임·직원 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더 큰 열정으로 내년 노르웨이 연차회의의 참석을 준비하고, 한국대대회 회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자 한다.